

동궐도에 보이는 궁궐정원의 조영수법

진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A Study on Design Techniques of Palace Gardens presented in Donggwoldo

Chin, Sang-Chul

Dep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all landscaping elements of Donggwoldo by building and identify the palatial garden landscaping characteristics and landscaping methods in a bid to explore landscaping methods applicable for modern-time gardens of Korea through Succession of Tradi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adopted by which the palatial gardens appearing in Donggwoldo were observed according to garden elements to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Garden elements in Donggwoldo include oddly shaped stones, ponds, buildings and Madang, borders and areas, and trees. Thei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nd as a result they are outlined as follows.

Location : Buildings in Donggwoldo were located in the optimal areas within the Myungdang (the best location), with the building sites being created by transforming the natural topography positively according to the existing topography and uses.

Tree planting :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s involved using the existing trees. There were no specific principle and method of planting trees, and no specific criteria for choosing the kind of tree. Symmetrical planting was adopted and its is considered embracing the viewpoint of making gardens based on the expression of Yin and Yang. Strongly symbolical kinds of trees were also adopted.

Bangji : it takes a nearly circular shape in palatial gardens, and such shapes represent conceptual and abstract symbols. They were also frequently used as the place of public entertainment.

Pavilions : they did not take a certain standard shape. They had diverse shapes, including a triangle, square, pentagon, hexagon, and octagon and cross.

Oddly shaped stones : Oddly shapes stones and stone cases were deployed mainly near the bedroom and the crown prince's residence and in the rear garden.

Hwagye : it appeared mainly in the back of the bedroom, the crown prince's residence, the princess's residence, and other women's quarters.

Chwibyeong : it was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drawing the natural energy like a natural inlet instead of being the nature-dividing wall.

Korea's garden composition method was very different from the Western and Chinese method. Overall, Chosun palatial garden style was characterized by strict and Confucian features, while the garden construction method adopted the Taoism thought. Yet, the gardens had a carefree aspect.

Key words : Design Methodology, Donggwoldo, Garden Facilities, Location, Palace Garden, Succession of Tradition

[†] Corresponding Author : Chin, Sang-Chul, Dep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Buyeo 33115, South Korea, Tel.: +82 41-830-7320, E-mail: chinsch@nuch.ac.kr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동결도』에 담겨있는 모든 정원 요소를 각 원(院)별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궁궐정원의 조영특성 및 수법을 파악 하여 전통계승을 통해 현대 정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동결도에 나타나 있는 궁궐정원의 모습을 정원 요소별로 관찰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동결도에 나타나는 정원 요소로 괴석과 연못, 건물과 마당, 경계와 영역, 수목 등이 있으며, 공간에서 확인되는 각 구성요소의 배치특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입기의 경우 동결도내의 원(院)은 명당 내부의 최적지를 선택하여 각각의 대지를 기존의 지형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연을 변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식재는 궁궐을 조성하면서 기존 수목을 그대로 활용하여 원칙적인 식재 방법이나 수종의 선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칭식재를 한 점이 특징으로, 이러한 대칭식재 방법은 음양 표시의 작정관(作庭觀)으로 보인다. 수종의 선정에 있어서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였다. 지당은 궁궐정원에서 대부분 관념적, 추상적 형태를 상징하는 원형으로 나타나며, 중락(衆樂)의 장소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자를 만드는 형식은 일정하지 않았고, 형태적으로는 삼각, 사각, 오각, 육각, 팔각 등에서 십자모양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괴석과 석함은 주로 침전 주위와 동궁처소 그리고 후원에 배치되어 있었다. 화계(花階)는 주로 침전의 후면 및 동궁전, 공주의 처소 등 주로 부녀자의 거처에 나타난다. 취병(翠屏)은 자연과 단절하는 장벽이 아니라 선택적 인입을 하는 체와 같이 자연의 기를 안도하는 의도로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원은 구성방식에 있어서 서구나 중국의 경우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궁궐정원은 형식에 있어서는 엄격한 유가적 규범이 적용되었고, 작정 수법은 신선사상을 많이 차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소탈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어 : 궁궐정원, 동결도, 작정수법, 정원시설, 전통계승

1. 서론

전통이란 문화적 전통을 말한다. 조경은 일종의 물질적 생산이기도 하면서 정신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문화를 인간 생활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생활방식의 총체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 시대 정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문화적 원류를 찾아 볼 수도 있다. 근래에 들어서 '정원(庭園)'이라는 용어가 조경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통상적으로 쓰이는 '정원'이라는 용어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외면한 채 서구적 사고에서의 정원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정원박람회 같은 장소에 우리고유의 사상이나 기법은 무시된 채 전통적인 수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원박람회장의 창덕궁 부용지 재현의 예를 들자면 재현과정에서 정자와 지당의 비례, 주변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하여 어색한 모양을 띄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현대 아파트나 공공건물에서의 전통조경계승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재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어떻게 재현하느냐가 중요시된다[1].

이러한 사고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양식의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원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통정원의 입기와 조영사상, 정원구성요소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의 출발은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의 특징으로는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이용한다는 것'과 '자연의 성질을 잘 해석하여 자연과의 융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은 남아있는 유적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형으로 유지된 것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다행스럽게도 『동결도』가 전해져 내려와 전통정원으로서의 궁원(宮苑)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동결도』에는 궁원의 모습이 정밀묘사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의 모습이 원형을 유지한 채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동결도에 그려져 있는 창덕궁의 궁원은 조선시대 조경문화의 표상이며 우리나라 조경양식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궁궐정원, 즉 궁원과 주택정원은 조영사상과 배경, 규모, 사용재료의 종류와 가공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정원이라는 것을 담으로 둘러싸인 원(院)에 수식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 가운데 큰 것은 여러 개의 정원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의 정(庭)과 원(院)은 또 각각 하나의 '원(園)'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궁원, 즉 궁궐정원은 그 시대 조경 또는 정원문화를 선도했던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궁원(宮苑)'과 '궁원(宮園)'은

기록에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苑)’은 나라 동산을 뜻하는 말로, 울을 치고 금수를 기르던 곳으로서 옛날에는 ‘유(囿)’라고 했으며 한나라 이후에는 ‘원(園)’이라 했다. 그러므로 ‘궁원(宮苑)’이란 궁중(宮中)의 정원을 뜻하는 말이다[2].

『동궐도』에는 전통적인 궁궐정원의 모습이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잘 나타나 있다. 그림에 나타난 모습의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조영수법과 특성을 파악한다면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의 정원계획과 설계에 반영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목적 및 방법

1. 서구적 의미의 정원(庭園)과 전통정원

정원(庭園)이란 용어는 한자문화권에서 비교적 근래에 생겨난 이후 보편화된 용어로서, 일본인들이 19세기 후반에 서양의 ‘Garden’을 번역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로 통용되어 왔다[3].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정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라는 설은 정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정원이라는 용어 보다 원림이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4].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원림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여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원림’이라는 용어와 정원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개념의 정원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원(庭園)의 용례를 보면,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는 정원의 정의를 ‘집에 딸린 뜰이나 동산’이라고 개략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원은 단순히 집이나 궁궐·서원·사찰 등 단위적인 건물에 딸린 뜰이나 동산·못 등의 공간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고 부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원 자체를 별도로 만드는 별서와 같은 개념도 있다.

중국의 학자들이 언급한 원림과 정원에 관한 몇 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정원 및 원예학자인 진식(陳植, 1899~1989)은 『장물지교주(長物志校注)』에서 건축물 주위에 경물을 배치하고 화목으로 배경을 살린 그윽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원림’이라하며 이를 원정(園亭), 원정(園庭), 또는 임원(林園)이라고도 하는데 곧 조원학에서 말하는 정원(庭園)이라고 하였다[5]. 이 정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측면이 있다.

팽일강 교수는 『중국정원림의 분석』에서 원(園)은 인공적 방법으로 또는 화목을 심어 기르거나 돌을 쌓아 가산을 만들거나 물을 끌어와 연못을 만들거나 또는 이상의 각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경을 구성하고 조직함으로써 관상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6]. 그런데 ‘정(庭)’ 또는 ‘원(院)’은 간혹 화목, 산석으로 장식되기는 하지만 독립된 경관을 구성하기에는 부

족하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원(院)’에는 반드시 관상할만한 경이 있어야 하며, 경관 의미가 없는 공간인 원락(院落:뜰)은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해도 ‘원’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園:원림)’과 ‘정(庭:정원)’에 대해 정의를 내린 점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원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원림이란 자연산수를 주제사상으로 하고 화목, 수석, 건축물 등을 물질적인 표현수단으로 하여 유한한 공간 속에 창조한, 시각적으로 다함이 없으며 고도의 자연정신의 경계를 지닌 환경이다.

원림의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2 가지의 범위가 서로 다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원 가운데 큰 것은 여러 개의 정원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의 정(庭)과 원(院)은 또 각각 하나의 ‘원’자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 고전 원림 분석』에서 모든 원에는 반드시 관상할만한 경(景)이 있어야 하며, 경관의 의미가 없는 공간이 원락은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해도 원으로 볼 수 없다는 개념이다. 두 가지 모두 정원을 가리키는데, 다른 점은 전자는 원림 중의 원자(院字:뜰)가리키며, 후자는 일반적인 정원, 즉 전통적인 택원(宅園)을 가리키는 것이다[5]. 『설문해자』에서는 정원(庭園)을 ‘정’ 또는 ‘정원(庭院)’의 뜻과 관련지어 정(庭)은 궁중(宮中)이고, 궁은 실(室)이며, 실의 가운데를 정(庭)이라하였으며, 원(院)은 주위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정(庭) 또는 정원(庭院)은 모두 담장과 가옥으로 둘러싸인 실외공간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서양의 정원은 ‘정원(庭園)’공간에 조원을 하고 그것을 ‘정원(庭園)’이라 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원림’과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정원(庭園)’의 정의를 내리자면 정원(庭園)이란 정원(庭院)의 유한한 공간 속에 화목, 수석, 새와 물고기 등의 물질적 표현수단으로 창조한, 시각적으로 다함이 없으면서 자연산수의 정신적 경계를 지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정원양식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경우, 특정양식과 형식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그러한 양식이 어떤 계기와 경로를 거쳐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하는가, 그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는 구성 요소들은 무엇 인가 등에 관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원의 조사항목으로는 식물, 건조물, 경물(景物), 지형과 자연조건 등을 우선적인 조사항목으로 하되 경관의 구성, 경물의 포치(布置)방식, 정원의 평면구성, 시각적 특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궐도는 사실적인 그림으로서, 전통적인 정원의 모습이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동궐도에 나타나 있는 그림은 조각적인 위치와 시각에서 본 것 이어서 설명

과 해석을 통하여 평면과 입면상의 조영수법과 공간적 특질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정원이라는 공간에서의 재식의 방법 또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동궐도에 나타나 있는 궁궐정원의 모습을 정원 요소별로 관찰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동궐도에 있는 정원 요소로 괴석과 연못, 건물과 마당, 경계와 영역, 수목, 경물 등을 들 수 있는 데 해석을 통한 각각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동궐도에서 보이는 궁궐의 정원에 한정하기로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후원의 영역은 본 연구에서의 정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용정과 애련정 주변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궐도』에 담겨있는 모든 조경요소들 각 원(院)별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궁궐정원의 조경 특성 및 조영수법을 파악 하여 궁궐정원의 복원자료로 우리나라 현대 정원에 전통을 계승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도상으로 파악하기 힘든 내용은 『궁궐지』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였다.

III. 궁궐정원의 영역별 고찰

1. 외조(外朝)

1) 돈화문(敦化門) 내측의 원

돈화문은 창덕궁(昌德宮)의 정문이다. 이 지역은 삼문삼조 중 외조(外朝)에 속한다. 계단 앞쪽으로는 긴 대(臺)가 있고 그 중앙에 어도가 있다. 이 어도(御道)는 정문인 돈화문부터 인정전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어도는 임금의 통로로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돈화문 안쪽으로 커다란 장방형의 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명

당수(明堂水)를 가로지르는 금천교(錦川橋)가 공간을 양분하고 있다. 이른바 진입 공간으로서의 원을 구성하였다. 명당수를 건너 정전으로 진입하는 수법은 권위를 상징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속과 성의 구분공간이다. 또한, 이것은 일종의 통과례 행위로 명당을 표시하는 수법이다.

이 방형(方形)의 공간의 어구(御溝)에는 능수버들·오동·회화·느티나무 그리고 화목류(花木類)인 복사나무(살구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느티나무나, 회화나무의 식재는 주(周)시대 조정에 느티나무(槐木) 세 그루를 심어 삼공(三公)의 좌석을 표시 한다는 데서 유래된 전통이다[7].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조위침묘사직도(朝位寢廟社稷圖)를 보면 고문(皋門)과 고문(庫門)사이 외조공간에 괴(槐) 세 글자 가 있다. 그래서 왕궁을 괴신(槐宸)이라하기도 한다. 또한, 금호문(金虎門) 밖의 숲에는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음나무, 회화나무와 복사나무(살구나무) 등이 보이고 궐 안으로 울창한 송림을 볼 수 있다. 입구부로서의 상징적 공간을 다양한 조경요소로 처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2. 치조(治朝)

1) 인정전(仁政殿)의 원(院)

인정전은 치조(治朝)의 영역이다. 인정전은 왕이 조회를 받던 정전으로 입구 주변 인정문 앞에 진선문으로 진입하는 장방형의 공간을 하나 더 설치하여 축이 꺾이는 것을 받아주는 공간을 두었다. 인정전의 외부공간은 원(園)이라기 보다는 원(院)이다.

인정전의 외부 공간은 일랑으로 둘러싸인 방형의 공간으로 인위적인 폐쇄 감을 형성하고 있다. 어도(御道)가 있으며 앞전면이 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징성을 중대시킨다. 중앙에 넓은 뜰이 있는데 전형적인 원(院)으로서 인위적인 폐쇄 감을 주었다. 인정전의 원은 엄밀한 의미로 보자면 정원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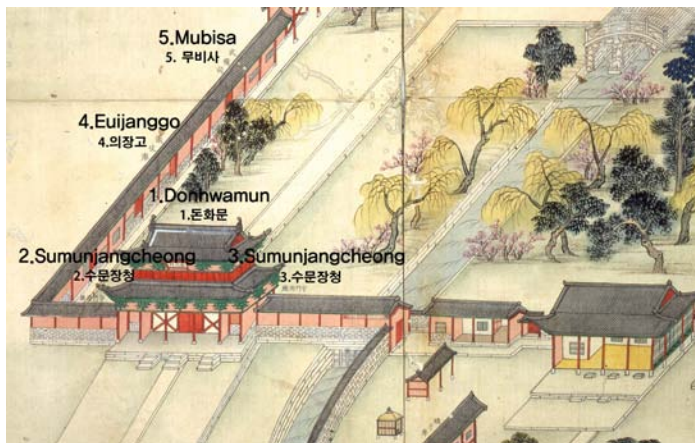


Figure 1. Donhwamun(敦化門) and its surrou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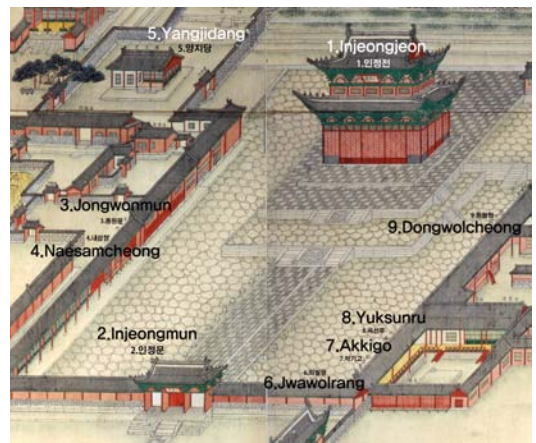


Figure 2. Injeongjeon(仁政殿) and its surroundings

이곳은 전면이 박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품계석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월대(月臺)위의 면은 바둑판 문양으로 흰색과 흑색을 교차하여 포장하였는데 실제 다른 색상의 돌을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전 뒤 경사면은 경사처리를 위해 다섯 개의 석단으로 조성하였는데 궁궐의 정전이라는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꽃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으며 후면은 전담으로 축조하였다. 현재 이곳에 식재가 되어있는데 원형과는 맞지 않다.

인정전 뜰은 조회의 용도 외에 향연을 베풀고, 즉위식을 갖으며 하례를 받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사시에는 의례적으로 장막을 친다. 한편 인정전(仁政殿) 담 바로 뒷면까지 송림이 우거져 산자락까지 연결된 것은 주산(主山)인 응봉의 지맥이 인정전(仁政殿)에까지 미침을 나타낸다.

2) 희정당(熙政堂)과 그 주변의 원

희정당(熙政堂)은 편전(便殿)으로 정사를 보던 곳이다. 동궐도(東闕圖)에 있는 희정당(熙政堂)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다. 희정당(熙政堂)의 영역은 방형으로 구성된 하나의 영역을 용도에 따라 3곳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의 공간은 판장으로 구분하여 용도상의 공간 분할 및 차폐를 하였다. 전면 좌측에 방형(方形)의 못(塘)이 있으며, 동측으로 여러 개의 석단(石段)이 보이나 화계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보아 정전이나 편전은 경사처리를 위한 단을 조성할 뿐 식재를 하거나 장식적 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희정당 측면에 있는 연못은 감상용으로 조성하였다기보다는 배수처리를 위한 용도로 조성하였다가 감상용을 겸하게 된 것 같다. 이는 희정당의 기둥이 띄워져 높이 건축된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동측이 후원으로 통하는 저지대 경사지로 이 지역은 물을 집수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했을 것이다. 감상용이라는 용도는 『궁궐지』에 “현종 15년 갑인(甲寅)에 희정당 연못에 연꽃의 꼭지와 꼭지가 맞붙은 꽃이 피었다[8].”라는 기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희정당 뒤편 양심각 전면에 괴석(怪石)과 석함이 두 개 있다. 양심각의 용도는 알 수가 없으나 괴석의 배치로 미루어 강학(講學)이나 휴식의 장소로 추정된다. 이러한 괴석의 배치에서 신선을 희구하는 사상이 조경요소에 영향

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궁궐 내부의 원은 정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편전에도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정원으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연조(燕朝)

1) 대조전(大造殿)·집상전(集詳殿)·경훈각(景薰閣)과 그 주변 이 지역은 연조(燕朝)지역이다. 대조전은 왕비의 정침(坤殿正堂)으로 무량각(無樑閣)이다. 『동궐도』의 대조전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다. 지금의 모습은 일본인들이 경복궁의 교태전(交泰殿)을 헐어다 지은 것이다. 대조전은 건물의 위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월대(月臺)를 설치하였고 이 월대의 삼면을 뇌록판장으로 가려 각 문을 두고 문장(門帳)을 설치하여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처리하였다. 또한 월대 전면 좌우 양측에 철계 드므를 설치하여 물을 담아두었다. 이것은 불귀신이 하늘에서 드므의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간다고 하는 말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9], 화재에 대한 방비는 궁궐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로 작용된 듯하다. 이러한 민간 신앙적인 조경요소의 등장은 궁궐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대조전 좌우로 흥복헌(興福軒)과 용경헌(隆慶軒)이 있는데 이 용경헌 전면 쪽 측면에도 뇌록판장이 설치되어 차폐 및 공간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폐수법은 남녀유별이라는 유교 논리의 공간적 표현이며 공간의 위계 표시이다. 대조전 후편 역시 후원에서 내려오는 지맥과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뒤편 숲에 소나무와 회화나무가 우거져 있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지형을 손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하여 지맥을 연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상전은 대조전 위쪽에 있고 넓은 마당으로 처리되어 있다. 집상전 역시 무량각이다. 대조전과는 행랑으로 이어져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보인다. 대조전의 뒤쪽 집상전의 측면 마당에는 석함에 올려놓은 괴석 3기가 보이며 철계 드므 두 개도 보인다. 괴석들은 삼 산형으로 이끼가 많이 피어있다. 이 마당에는 원래 존재 하였던 두 그루의 소나무를 분재 형으로 만들어 그 밑에 석단을 조성한 것과 느티나무가 있고, 후편과 측면으로는 화계가 조성되어 복사꽃 등 화목류와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의



Figure 3. Huijeongdang(熙政堂) and its surroundings



Figure 4. Daejojeon(大造殿), Jipsangjeon(集詳殿) and its surroundings

교목을 식재하였다. 집상전 위의 화계 첫째 단과 둘째 단에는 꽃나무를 심었고 제일 위단은 통로로 꽃과 나무를 심지 않았다. 이것에서 주로 정침의 앞마당에는 상징성과 폐쇄의 이유로 식재를 하지 않지만 그 외에 부녀자를 위한 공간에는 마당에도 식재를 하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정원으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괴석의 배치는 신선사상과 관계있는데, 이는 괴석을 감상하면서 신선과 같은 느낌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궁궐지』에 징광루(澄光樓)는 대조전 서북쪽에 있는 2층 누각이다. 위층은 징광루이고 아래층은 경훈각인데 앞뜰에 어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징광루는 지붕을 청색 기와를 사용한 독특한 건물이다. 징광루는 주로 전망하는 용도로 사용된 듯하다. 이 경훈각 앞의 공간 역시 용도상의 구분인 듯 취록판장으로 가려 공간을 삼분(三分)하고 있다.

2) 수정전(壽靜殿)과 그 주변의 원

수정전은 대비전으로 북쪽 후원과 인접하여 있다. 이 공간은 전각 좌우로 행랑을 설치한 전형적인 장방형의 형태이다. 수정전(壽靜殿)과 정문 사이의 마당에는 판장으로 낮은 담장을 쌓고 중문을 두고 문에 휘장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림과 동시에 공간을 구분하였다.

전각의 서측 행랑은 대비를 위한 공간인 듯 낮은 동산에 복사나무(살구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는 후면에 경사지가 나오지 않아 측면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정원으로 조성한 듯하다. 수정전 전면에 우물이 보이고 조명등을 앞뒤로 설치하였다.

3) 선원전(璿源殿)과 그 주변의 원

선원전은 임금님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전각이다. 선원전 역시 월대를 만들었으며 앞뒤 마당 동서 양측에 모두 4개의 드므를 두었다. 동측은 석단(石段)으로 처리하였으며 전면에 향나무와 주목을 식재 하였는데 향나무에는 네 개의 나무기둥 받침대를 설치하였고 주목도 주위에 지형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식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궁궐조성 이전에 존재하였던

수목으로 생각된다. 선원전 후편으로 임금의 출입로인 어도(御道)가 보이고 노거수인 향나무에 아홉 개의 지주대를 설치한 것을 보면, 제한공간으로서 전면의 향나무 식재는 당연하나 후면의 향나무는 창덕궁 조영 이전의 기존 식생일 가능성도 있다.

4) 영모당(永慕堂)·경복전기(景福殿基)와 그 주변의 원

영모당은 명종 때(31년) 인원왕후를 모시던 곳으로 동측의 경복전과 같은 영역에 있었다. 영모당의 영역은 방형의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경복전은 정자와 당(塘) 등 외부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즉 작은 방형의 공간과 큰 방형의 공간이 중첩되어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경복전 전면에 애련정(愛蓮亭)과 지당이 있었음은 한 궐내에 정자 두개가 같은 이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일이다.

음악표시관으로서 지당과 정자가 짝을 짓는 것 이외에 단을 조성하고 관상을 위하여 담장을 두른 뒤 그 위에 소나무와 복사나무(살구나무)의 조화식재를 하였으며 우물까지 있어 소규모 공간에서 모든 조경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궁궐지』에 따르면 경복전의 뒤로는 울창한 송림이 자라고 있었으며, 지당에는 연꽃이 피기도 하였고, 물고기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0]. 애련정과 애련지는 주돈이의 애련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교사상의 표출이다.

5) 성정각(誠正閣)과 그 주변의 원

성정각의 건축평면은 ㄱ자형으로 남쪽이 보춘정(報春亭), 동쪽이 희우루(喜雨樓)이다. 성정각의 비교적 넓은 방형의 공간은 판장을 네 곳에 설치하여 공간을 다섯 곳으로 구분하고 또한 문 앞에 문장(門帳)을 설치하여 진입 시의 시야를 막게 하였다. 이 지역의 판장은 각각 색이 다른 홍판장(紅板牆)과 백골판장(白骨板牆)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건물사용자의 신분상의 차이 및 용도상의 차이인 것 같다.

성정각은 세자의 서연(書筵)을 행하던 곳으로, 특별히 판장을 사용하여 시야를 가리고 공간 구분을 한 것 같다. 성정각 후



Figure 5. Sujeongjeon(壽靜殿) and its surroundings



Figure 6. Seonwonjeon(璿源殿) and its surroundings



Figure 7. Youngmodang(永慕堂), Gyeongbokjeongi(景福殿基) and its surrou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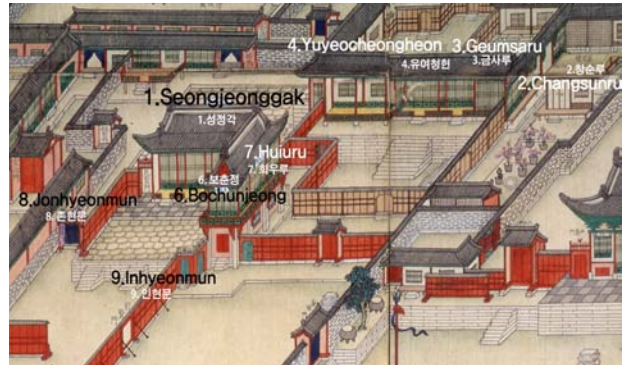


Figure 8. Seongjeonggak(誠正閣) and its surroundings

편의 유여청헌(有餘淸軒) 좌측으로는 초가지붕의 창순루(蒼筤樓)가 있다. 이 초가의 전면에는 이동식 화분이 6개가 배치되어 있고 분 안에 괴석이 담긴 것도 있다.

6) 중희당(重熙堂)과 그 주변

중희당은 규모가 큰 팔작기와 집으로, 동남쪽 모서리에 월랑(月廊)을 만들었다. 육포정인 이구와(貳口窩)와 이어져 있고, 소주합루(小宙合樓)와 이어져 있다. 중앙 돌계단과 전들은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전면의 공간, 즉 월대 아래에는 측우기·일성정시의·혼천의 등의 천문관상기기와 풍기대, 석등(石燈)이 있으며, 맞은편 입구 측으로 취병(翠屏)을 설치하여 시선을 차폐하고 있다. 취병은 보통 살아있는 식물재료를 사용하는 생물타리로 조성하지만, 소주합루 앞에는 포장된 지역에 취병을 설치하고 있어 화분을 그 안쪽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주합루 전면에는 괴석(怪石)이 석분위에 3기가 있어 누(樓)에서 바로 감상하거나 통행 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하

였다. 오른쪽 벽 월대(月臺) 바로 위에 신갈나무 한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좌우에 드므를 설치하였다. 중희당의 동행각 문인중양문(重陽門)을 지나면 바로 널찍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원(苑)으로 다다른다. 이 공간은 후면을 취병으로 가리게 처리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터 같지는 않으며 월대의 소규모 원(小苑)인 듯하다. 입구 변에 취병과 가리개로 시야를 차단하였다. 취병 전면에 전나무 두 그루를 대칭식재 하여 음양을 표현하였다. 그 앞의 석단에는 조릿대의 식재도 보인다. 또한, 복사나무(살구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한 것으로 보아 완상의 공간으로 사용한 듯하다. 이곳에도 우물이 두 곳 있으며, 특이한 것은 초가 정자모양의 파수간(把守間)이 두 곳에 위치하여 경비를 서고 있는 점이다.

7) 문화각(文華閣)·수방재(漱芳齋)·연영합(延英閣)·해당정(海棠榭)과 그 주변

소주합루(小宙合樓) 뒤에 수방재와 문화각이 있고, 수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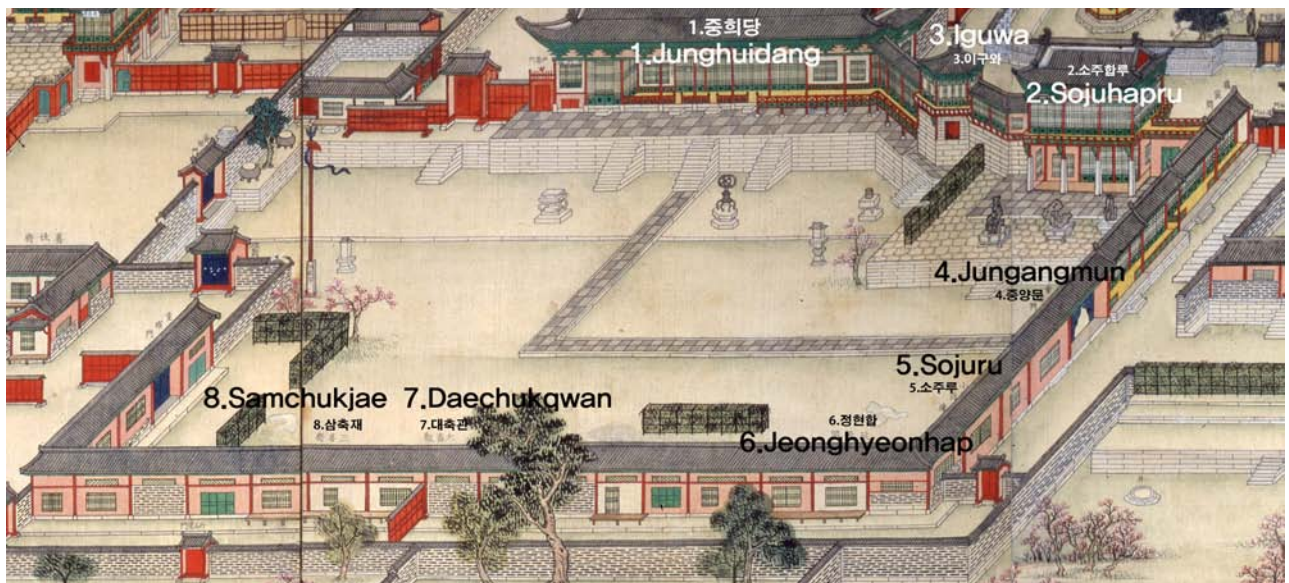


Figure 9. Junghuidang(重熙堂) and its surroundings



Figure 10. Munhwagak(文華閣), Subangjae(漱芳齋) and its surrou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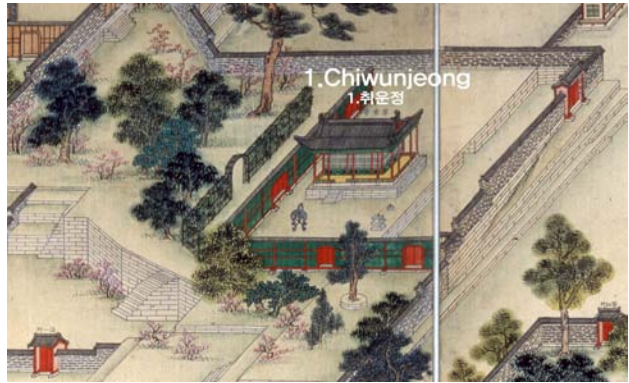


Figure 11. Chiwunjeong(翠雲亭) and its surroundings

마당에는 정자 모양의 건물로 된 도서관과 서쪽 마당에는 ‘해당정(海棠庭)’이라는 다각형 형태의 특이한 집이 있다. 연영합과 수방재 공간의 마당 한 가운데는 나무를 심지 않고 비워 두었다. 이곳 영역에도 주목과 느티나무가 식수단 위에 식재되어 있으며 문 양옆에 괴석을 2기 설치하여 진입부의 상징성을 주고 있다. 연영합에는 세 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서쪽이 학몽합, 동쪽이 천지장남지궁, 중앙이 연영합이다.

이곳 앞의 건물 이름은 학금(鶴禁)이며 장식적인 문이 있고, 문 좌우로 학(鶴) 두 마리와 괴석 2기가 있어 장식요소로서 학과 괴석을 병존시킨 특이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야간에도 이용한 듯 석등도 있다. 이 앞마당에는 회화나무를 식재하고 특히 옆의 문화각과 연결된 담장에 장식적 문을 설치하여 두 공간이 같은 사람의 이용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연영합 좌측면으로 취운정(翠雲亭)과 내원(內苑)이 연결되는데, 이곳은 후원이 아닌 장소에 외부공간을 꾸민 대표적인 장소로 화목류와 느티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복사나무(살구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취운정은 취록 판장으로 남서쪽이 가려지고 또 서쪽에 한 겹 더 취병으로 가려져, 은밀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취운정 마당에는 측우기, 간의,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이 집은 창경궁 쪽인 동쪽에 문이 있다. 취운정 서쪽에는 노송이 한 그루 서 있고 활엽수 계통의 나무들도 보인다. 취운정 남쪽 취록판장 앞에는 둥근 식수단이 있고 주목 한 그루가 있다.

4. 후원

1) 부용정(芙蓉亭)·주합루(宙合樓)·영화당(映花堂)과 그 주변
이곳 지역은 후원의 영역이다. 그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원이라는 점에서 후원 상부의 영역과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정원에 포함시켰다.

부용정은 ‘아(亞)’자형 평면의 특이한 정자이며 건물의 북쪽 두 기둥이 물속에 잠겨있다. 부용정 북쪽 정면에 넓은 부용지가 있다. 못의 가장자리는 장대석을 바른 층 쌓기로 하여 마감

하였다. 넓은 연못의 중앙에는 원도(圓島)가 있는데 섬 가장자리를 장대석으로 쌓았다.

부용지에 동북쪽에 하나, 서쪽에 배가 두 척 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못에서 뱃놀이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궁궐지』 기록에 정조(正祖) 때 야등부용정소루시(夜登芙蓉亭小樓詩)의 소서(小序)와 상화조어시(賞花釣魚詩)의 소서의 구절에서 낚시질과 꽃 감상·뱃놀이 등의 이용 행태를 알 수 있다[11]. 부용(芙蓉)은 연(蓮)의 별칭으로서 주돈이의 애련설과 관련된다.

부용지 서측에 인접하여 사정기(四井記) 비각이 있으며 이 주위에 복사나무(살구나무)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어 정원공간으로 사용된 듯하다. 이 비각 우측의 우물에는 목책을 둘러 쌓아 놓았다.

부용정 북쪽 산등성이에 세운 주합루는 이층 다락집으로 주변에 서향각(書香閣)이 서있다. 주합루 아래층은 규장각이며, 위층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누대(樓臺)를 만들었다. 정문인 어수문(魚水門)은 담의 한쪽 면을 전부 취병으로 설치한 가운데 있으며 취병의 색채와 조화되게 녹색으로 칠하였고, 좌우에 2개의 문을 더 달았다. 이밖에 좌우 건물의 출입구 역시 취병 속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취병의 설치는 자연과의 친화적 행위로 정전·침전 보다는 자연요소가 강한 후원의 장소에 많이 사용된다. 어수문을 통해 들어서면 경사지 처리를 위한 여러 단의 석단이 있고, 주합루 팔각지붕이 시야에 들어온다.

주합루의 뒤편 언덕은 3 단으로 처리하였고, 화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주합루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조망이 좋아 부용정과 부용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차경(借景)효과를 가진다. 또 부용정에서도 눈 아래에는 원지가, 시야 위쪽으로 계단상의 원림과 주합루가 한 시야 속에 들어온다. 한편 주합루 전면에는 주목 두 그루가, 후면 월대위에는 진나무 두 그루가 대칭 식재 되어있어 공간을 상징화 시킨다. 희우정의 단상 위에는 오동나무가 한 그루 독립 식재되어 있다.

영화당은 숙종 때 옛 터에다 고쳐지은 것이다. 『궁궐지』의 영화당 북쪽에 작은 못이 있는데 이름은 감로(甘露)라 한다. “가을에 영화당의 못 가운데에서 연꽃이 나란히 피었다.”라는

기록에서 못 안에 연꽃을 식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동궐도에는 작은 못과 큰 못이 두개 그려져 있고, 연못 주위에는 수림이 우거져 있다. 영화당 앞의 공간은 궁궐 행사의 주요 공간으로 쓰인 듯하다.



Figure 12. Buyongjeong(芙蓉亭), Juhapru(宙合樓), Younghwadang (映花堂) and its surroundings

2) 애련정(愛蓮亭)·어수당(魚水堂)과 그 주변의 원

이곳도 후원의 영역이기는 하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정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금마문(金馬門) 옆 담장 중간에는 담장 사이에 초석을 놓고 이 위에 ㄱ자 모양의 통돌을 깔아 세운 불로문(不老門)이 있다. 불로문으로 들어서면 우측으로 방지(方池)가 있고, 이 북쪽에 애련정이 있다. 『궁궐지』에 “숙종 때 연못 가운데 섬을 쌓고 정자를 지어 애련정이라 하였다. 정자의 남쪽에는 함벽정(涵碧亭) 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동궐도』에서 보이는 애련정은 연못 가운데가 아닌 북안에 위치하며, 사모정으로 네 기둥 가운데 남쪽 전면의 두 기둥이 연못 속에 있다. 기둥과 창방 아래에 낙양판을 붙여 정자 안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사방으로 두른 정자의 난간 안쪽에 앉을 자리가 있다. 애련정에서 바라다보아 펼쳐지는 조망과 보여지는 조망의 시각적 조작을 한 것이다.

정자 뒤쪽 구릉은 장대석으로 쌓은 석단을 여러 단 만들었고, 그 위에 대칭적으로 2기의 괴석을 설치하였다. 연못의 가장자리도 장대석으로 쌓았다. 애련정 안쪽 연경당 쪽으로부터 모아 흘러내리는 도랑물은 관형 누조를 통해 한 길 낮은 곳에 있는 물확으로 작은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고, 이 물확에 가득 찬 물이 다시 연못에 흘러간다. 이 도랑의 상부에는 분재형의 소나무가 있고 옆에 우물도 있다.

애련정은 주무숙의 애련설에서 이 이름을 따온 것임이 『궁궐지』의 숙종 어제기(御製記)에서 알 수 있으며, 주무숙의 애련설이 방지구성에 있어서 기본사상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애련정 북쪽에 어수당이 있다. 『동궐도』에는 어수당이 팔각기와집으로 그려져 있으며 동서에 연못이 있고, 문이 있어 영소라 하며 석거문(石渠門)이 있다는 기록이 『궁궐지』에 있다. 연못 주위에는 담장이 쳐 있는데 이것은 이 연못이 어수당의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12].

연못 맞은편 둔덕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복사나무(살구나무) 등이 식재 되어있고, 건너편 언덕에 조릿대·느티나무·회화나무·매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이 어수당 영역에서 관동행사·뱃놀이 또 새를 기르는 취미 등이 『궁궐지』내 숙종의 “어제기”, 효종이 지은 “어수당원양” 시, 숙종이 지은 “어수관등” 시, 정조가 지은 “어수범주”, 순조가 지은 “어수관등” 시에 나타나있다.



Figure 13. Aeryejeong(愛蓮亭), Eosudang(魚水堂) and its surroundings

3) 이름 없는 집

육면정(준덕정)의 북쪽 산자락에 담장을 두른 넓은 마당을 가진 일자 집 한 채가 서향으로 있는데, 『동궐도』에는 이름이 없다. 그러나 기단 앞에 귀퉁이 모를 죽인 육각형의 월대를 두고, 그 위에는 네 개의 육각형 초석을 놓은 것으로 보아, 어막(御幕)을 칠 때 필요한 초석이라 판단된다. 한편 일각대문을 세우는 대신 전면 담장 중앙에 교창을 두고 교창의 좌우로 담장을 뚫어 올라가는 특이한 형태의 출입문을 좌우 두 곳에 설치하였다. 집체의 남쪽 측면에는 붉은 칠을 한 반달 모양의 문 두 짝이 그려져 있다. 그 뒤편으로 홍살대가 있는 출입문이 또 있는 것으로 볼 때, 신당 즉 곳을 하던 장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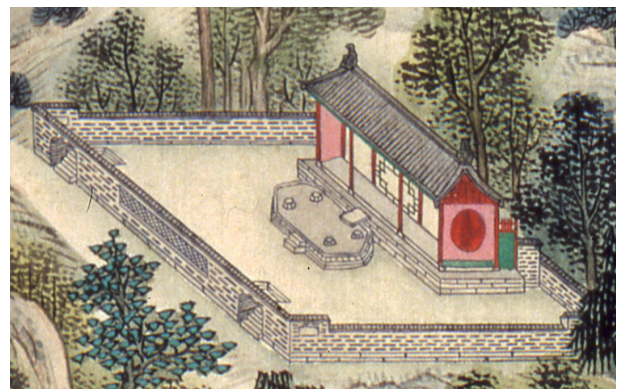


Figure 14. Unidentified house

IV. 결론

궁궐 외부공간의 구성요소 즉, 공원의 구성은 입기와 경관의 구성, 조경시설의 배치, 평면의 구성, 시각적 특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그 밖의 정원요소로서 괴석과 연못, 건물과 마당,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1. 입기

1) 입지의 결정

입기(立基)는 집 지을 터를 닦는 대지조성의 작업을 말한다. 동궐도내의 원(院)은 명당내부의 최적지를 선택하여 각각의 대지를 기존의 지형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연을 변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궁궐의 건물은 상주 건물의 대지인 경우 주로 절토(切土)방식에 의해 여러 단의 평지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집을 포치(布置)하였다. 이러한 평평한 대지들은 마당의 형태로 나타나고 명당의 기본형식이 된다. 궁궐입지의 지형조건에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고후저(前古後低)의 대지형국은 아래지역의 인공에서 위 지역의 자연으로 이행하게 된다.

2) 포치(布置)

상지와 입기가 끝나게 되면 이 대지 위에 건물을 배치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좌향(卦)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 건물의 배치하게 된다. 이로써 하나의 원과 궁궐정원이 구성 된다.

우리 건축의 기본단위는 건물 1 동과 부설된 마당 1정을 결합한 공간이다. 창덕궁 내의 건물의 배치는 이와 같은 단위공간이 나란히 놓이거나 겹겹이 놓이는 형국으로 되어있다.

2. 식재(植栽)

정원이라는 공간에서 재식의 방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창덕궁의 경우 동궐도에서 보이는 건물 주위의 수목은 “소나무의 식재를 명하였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식재의 결과이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도 어떤 나무는 식수단(植樹段)을 설치하였고, 바위 위에 자란 나무도 있는 것을 보면 궁궐을 지으면서 원래 있던 나무들을 그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형을 훼손 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살리면서 건물을 지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궁궐 정원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식재 수법의 경우 원칙적인 식재 방법이나 수종의 선택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주합루 후면으로 전나무 두 그루를 대칭식재 한 것과 전면 취병 앞으로 주목 두 그루를 대칭식재 한 것, 학금(鶴禁) 주위의 주목 두 그루를 역시 대칭식재 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대칭식재 방법은 음양 표시의 작정관(作庭觀)으로 보인다.

그 밖의 건물주위에 소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신갈나무, 오동나무 등의 교목을 단독식재 하거나 소나무와 그 밑에 복사나무(살구나무) 등을 심어 두 그루를 대비시켜 놓은 수법도 보인다. 일반적으로 침전, 대비전, 동궁전 등의 건물 마당에는 복사나무(살구나무), 살구나무, 매화 등의 화목류를 소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과 같이 식재 하였으며, 화계에 심은 수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식재방법은 마당에 있어서의 식재를 꺼리는 편이고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인하여 금기시하는 사항이 많은 편이나 동궐도에서 보이는 식재의 형태는 이용공간의 용도에 따라 앞마당에도 식재를 하였으며, 수종의 선정에 있어서도 상징적 의미가 강한 수종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소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의 식재를 들 수 있다.

동화문 진입부에 삼공을 뜻하는 회화나무 및 버드나무를 식재한 것과 처소의 안마당에 소나무를 식재한 것 그리고 분재로 소나무를 가꾸어 놓은 것, 방지에 연을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불로장생의 신선사상, 유교사상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분재형의 소나무는 괴석 배치와 함께 관상 및 상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당에 연꽃을 심은 것도 회화나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애련설에서 유래되어 주돈이와의 사유체계 공유라는 개념도 있으나, 연꽃이 화재를 싫어한다는 것과 궁궐내의 잦은 화재 발생의 이유로 거의 모든 지당에는 연꽃을 심고 있다.

『궁궐지』의 창덕궁 후원을 읊은 시문에 나타난 조경소재로는 먼저 식물로서 소나무와 소나무 숲, 반송, 잣나무, 만가지꽃, 연꽃(백련), 모란, 도(桃, 복숭아), 살구나무, 국화 등이 있고, 동물로는 못 속의 물고기, 백학, 자원왕, 오리, 앵무새, 매미, 두견새 등이 나타나 있다. 방지의 중도에는 선경으로서 자주 나타나는 수목을 심고, 완상효과를 의도 한다.

3. 조경시설물

1) 지당(池塘)

궁궐정원에서는 후원의 상부를 제외하고 물 요소가 지수(止水)로 나타난다. 지수는 물의 의미가 추상화 되고, 개념화된 자연으로서 정원에 도입된다. 궁궐의 연못에는 못에 연을 심어 주돈이의 애련설을 빌어 선비의 도를 상징 한다

그 연못을 모난 방지로 만들어 지방(地方)이라 땅을 상징하고 그 연못 속에 둥근 섬을 만들어 천원(天圓)이라 하늘을 상징하기도 한다.

경관의 연출이나 유희 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물을 모아두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수지, 저수지, 방화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궐도에 나타난 지당은 위락공간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 주요 건물 주위에 있을 경우 지당호안을 장대석으로 마감하였으며 기타 저수지나 방화수의 역할을 하는 지당은 자연상태 그대로 조성하였다.

규모에 있어서 지당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정원이 조성되고 감상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당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여 적절한 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자연히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도 건물에서 일상적으로 내다보는 위치에 언제나 조용한 지수가 늘 가까이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배수적인 측면에서의 용도도 무시 할 수 없다.

방지는 궁궐정원에서 거의 원형으로 나타나며, 관념적, 추상적 형태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중락(衆樂)의 장소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궁궐지』의 기록을 보면 애련정에서는 난간에 기대어 작은 못과 한가로운 뜰을 보며, 못의 연꽃과 물고기 등을 감상한 것을 알 수 있고, 『궁궐지』의 야등부용정소루(夜燈芙蓉亭小樓)에 의하면 왕이 신화와 함께 관등행사를 했으며, 꽃을 감상하고, 주유, 낚시를 하면서 달밤을 즐겼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위락행위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져 창덕궁의 야경을 즐긴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중락은 부용지의 연회로서 시연(詩宴)과 주연(酒宴)을 베풀고 연못에서 뱃놀이를 하며, 거문고·아악 등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행위가 많이 보인다.

2) 정자(亭子)

정자는 경치 좋은 곳에 잠시 멈추어 휴식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다. 정자를 만드는 형식은 일정하지 않다. 삼각, 사각, 오각, 육각, 팔각 등에서 십자모양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형식으로 지었다. 궁궐 내의 모든 건축물들이 엄격한 예제에 의해 지어지는데 반해, 정자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배치되고 지어졌다. 봄의 신록과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이 아름답게 변하는 궁궐내의 절경에 많이 지었다.

3) 괴석과 석함(怪石, 石涵)

화계 위나 뜰에 늘어놓는 석함은 석물의 일종으로 괴이하게 생긴, 그러나 운치 있는 괴석을 담아두는 석물이기 때문에 석함이라 부르며 때로 괴석을 받쳐주는 대라는 뜻으로 괴석대라고 한다.

석함은 일반적으로 정방형이나 장방형이지만 육각형, 팔각형인 형태도 있다. 높이도 다양한 편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괴석을 즐기는 경향은 궁궐에서 선호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궐도』에 보이는 괴석과 석함은 주로 침전 주위와 동궁 처소 그리고 후원에 배치되어 있다. 집상전 앞에는 석함위에 괴석 3기가 소나무 분재와 같이 배치되어 있어, 뒤편 화계와 함께 정원을 장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정당 후면에도 석함위에 괴석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측면에 있는 완연당(婉戀堂) 뒤편으로 나무 밑에 괴석이 하나 배치되어 있다. 소주합루 앞에는 월대위에 괴석이 3기 배치되어 건물 내부에서만 아니라 출입 시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서루로 들어가는 보운문 좌우에도 석함이 있는 괴석 2기가 배치되어 있고 연영합 앞 화정관의 대문 좌우로는 학과 석함 위의 괴석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후원지역에는 영화당 월대위에 괴석이 두 기 배치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괴석이나 석함은 통치 장소 보다는 침전이나 동궁의 처소 같은 영역에 휴식과 감상을 위한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괴석을 월대 위에 설치할 경우만 단독으로 놓이고 지상에 놓

일 때는 소나무, 학 등과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 도가사상인 신선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괴석에 봉래(蓬萊), 소영주(小瀛州) 등 신선설과 관련된 용어를 음각해 놓은 것에서 증명된다.

4) 화계(花階)

지형변화 시에 나타나는 단면에는 축대를 쌓는다. 낮은 대(臺)는 곧 화계(花階)가 되고 높은 대는 그냥 대라고 하여 경관을 완상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궁궐에서는 주로 부녀자들이 직접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제일 위의 한 단을 통행로로 비어 두었다. 화계에 괴석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궐도에서 보면 주로 침전의 후면 및 동궁전, 공주의 처소 등 주로 부녀자의 거처에 나타난다. 이는 신분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자들의 전용공간으로 이 역시 엄격한 유교의 윤리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동궐도에는 침전인 대조전과 집상전의 후면과 옆으로 화계가 조성되어 있다. 이 화계에는 느티나무, 소나무, 복사나무(살구나무), 매화나무 등 주로 관상용 수종이 식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계에는 관목을 심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동궐도에 나타난 화계에는 교목도 식재되어 있다. 또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이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평평한 곳에 건물이 위치하여 화계를 만들 수 없는 경우 화단을 측면에 조성하여 화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전 측면의 화단이 그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동궐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수정전 화단의 경우에도 식재 수종은 복사나무(살구나무) 등 화목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화계만이 정원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화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전면의 공간에도 화목류와 소나무, 오동나무 등을 심어 괴석과 함께 배치하여 공간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전면 공간과는 다르게 화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밖에도 화계는 반드시 건물의 후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있지 않은 경사진 곳을 처리하는 수법으로도 나타나는데, 연영합 담장 측면으로 경사지를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하고 화계를 조성하여 오동나무, 느티나무, 주목, 매화, 복사나무(살구나무) 등을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화계는 침전과 대비전, 동궁전 후면에만 설치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취병(翠屏)과 문

울타리로 쓰인 취병은 자연과 단절하는 장벽이 아니라 선택적 인입을 하는 체와 같아서 자연의 기를 안도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어수문은 자연과의 호흡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취병과 같은 울타리와 어수문은 이 기를 입체적으로 보존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계시설을 사용하여 공간을 정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통돌로 만든 불로문은

신선사상의 발로이다. 이 문을 통과함으로써 늙지 않는 의식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다.

취병(翠屏)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비취빛의 병풍이다. 식물을 이용하여 만든 생울타리를 말한다. 지주대의 사이나 덩굴 식물 중간 중간에는 초화류를 곁들여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하고 계절적인 변화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독특한 조경시설물이다. 『동궐도』에는 또 다른 가림 시설인 판장과 혼용하여 설치하였다.

『동궐도』에 그려진 취병의 위치는 주합루 앞, 옥류천의 농산정 앞, 희우정 앞, 중희당의 마당, 소주합루의 월대, 창경궁의 광례문 안쪽, 연영합의 남쪽 화원지역, 취운정 서쪽 판장 밖 등이다. 이 취병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나 최근 주합루 앞의 취병을 복원하였다.

6) 기타 조경시설

동궐도에 나타나있는 그 밖의 조경시설로 판장(板牆), 장과막(帳幕), 홍마목(紅馬木)과 하마석(下馬石), 굴뚝, 천문관측시설, 조명시설, 박제와 석함, 드므·부간주, 석수, 석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보면, 궁궐정원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식과 규범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공간구성요소로는 마당의 포치, 바라다보는 경관과 보이는 경관의 양면성, 건물과 마당의 일상적인 구성, 지수, 방지와 괴석의 병치 등 이었다.

궁궐정원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를 말한다면, 공간구성에 있어서 유가적 규범의 실천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왕족들은 유가적 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에도 그러한 사상과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정원이라는 사물을 보는 입장도 어디까지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형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물의 규범적 속성을 강조하였다.

마당과 건물과의 관계라든지, 건물의 배치 등은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궁궐정원의 공간구성 방식이 파악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면적이고 장식적인 면에서는 신선사상이 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궁궐정원의 조성방식은 우리나라만의 공간 형식이며,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 형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원은 곧 원(院)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물과 마당에 의해서 정원이 구성된다. 구성방식에 있어서

서구나 중국의 경우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이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궁궐정원은 형식에 있어서는 엄격한 유가적 규범이 적용되었고, 반면 장식적인 수법은 신선사상을 많이 차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소탈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REFERENCES

- [1] Zoh, K. J. and Kim, C. H.(2001). Characteristics of Representing Traditional Gardens in Landscape Design through Analyzing the Entry Plans of Seoul Park in Pari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6) : 84-95.
- [2] Academy of Asian Studies(1986).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Yongin : Dankook University Press.
- [3] Chung, D. O.(1986). Korean Garden. Anyang : Miteumsa. p.21-22.
- [4] Ha, T. I. and others(2014). Consideration of the usage of the term 'Jeong-Won' in the field of traditional landscape. The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14. p.91.
- [5] Sim, W. K. and others(2008).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and Culture in China. Seoul : Munudang. pp.58-67.
- [6] Paeng, I. G.(1989). The Analysis of Chinese Ancient Garden. Trans.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Bureau. p.35.
- [7] King Sejong Foundation(2001). Comprehensive Lexicon of Korean Classics Vol.3. Seoul : King Sejong Foundation Press. p.197
- [8]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1994). Gunggwaeolji. Vol.1. p.82.
- [9] Kim, Y. M.(2012). Dictionary of Traditional Landscape Facilities : Easy to understand. Paju : Dongnyokpub. p.196-197.
- [10]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1994). Gunggwaeolji. Vol.1. p.99.
- [11] Jung, W. J., Oh, L. C. and Sim, W. K.(2013). Study on the Prototype of the Rear Garden in Changdeok Palace through Gang Sehwang's Record of Strolling with King in the Forbidden Garde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1) : 87-97.
- [12] Baik, J. S.(1994). A Consideration on the Structure and Planting in the Osudang area of Secret Garden (Huwon): Changdok Pala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2(1) : 15-29.
- [13]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Bureau(1990). Changdeokkung Palace Yuanyou Report.
- [1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2). Changdeokkung Palace and Jongmyo Shrine Yuanyou Report.
- [1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3). Changdeokkung Palace and Jongmyo Shrine Yuanyou Report.
- [16] Changdeokkung Palace Office(2006). Reading Donggwoldo.
- [17] Chin, S. C.(1995). A Study on the Landscape Style of Palaces in Joseon Dynasty. Doctorate Degree Thesis. University of Seoul.
- [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1992). Donggwoldo.
- [19] Yoo, B. R. et al.(1989). The Original Form of Gardens in Joseon Dynasty.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i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 Culture.

원 고 접 수 일: 2015년 10월 26일

심 사 일: 2015년 11월 26일 (1차)
2015년 12월 08일 (2차)
2015년 12월 30일 (3차)

게 재 확 정 일: 2015년 12월 30일

4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